

2007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1~4교시)

• 1교시 언어 영역 •

정답

1	②	2	⑤	3	①	4	⑤	5	②
6	①	7	④	8	②	9	①	10	③
11	①	12	②	13	③	14	⑤	15	①
16	⑤	17	③	18	⑤	19	③	20	②
21	③	22	③	23	③	24	④	25	④
26	⑤	27	④	28	④	29	④	30	⑤
31	④	32	②	33	③	34	①	35	⑤
36	②	37	④	38	③	39	①	40	①
41	④	42	②	43	⑤	44	②	45	④
46	③	47	④	48	①	49	②	50	②

해설

1. [출제의도] 강연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여러분, 오늘은 사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과의 원산지는 발칸 반도로 알려져 있으며, 4,000년 이상의 재배 역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스-로마 시대에 이미 접목 번식법이 소개되어 있을 정도로 재배 기술이 진보되어 있었습니다.

사과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은 고려 의종 때 <계림유사>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본격적인 재배는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품종인 '국광'이 도입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 사과 재배 면적이 급속도로 늘어나 지금은 낙엽 과수 중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사과는 수분이 85~9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펙틴과 섬유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타민 A와, B₁, C 등도 다양 함유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 기력의 회복을 촉진시킵니다. 또 펙틴은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도 막아줍니다. 노폐물의 배설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깨끗한 피부는 물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대장암,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등의 예방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사과를 고르려면 먼저 색깔을 보아야 하는데 표면은 물론 꼭지 반대 부위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 부위가 홍록색이나 담황색이면 잘 익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꼭지에 푸른색이 돌고 물기가 있는 것이 좋으며, 과육이 단단하면서도 크기가 적당한 사과를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과는 잘 씻어서 껍질째 먹어야 한다는 것 아시죠? 사과는 껍질과 껍질 바로 아랫부분에 대부분의 영양분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①은 첫 단락에서, ③은 세 번째 단락에서, ④는 네 번째 단락에서, ⑤는 마지막 단락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재배 방법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②번이 정답이다.

2. [출제의도] 화자의 태도에 적절한 어휘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다정 : 어머! 영화 아니니? 오랜만이다. 방학 잘 보냈어?

영희 : 다정이구나. 부모님과 여행 다니다 보니 방학이 끝났어. 너는 어땠니?

다정 : 나야 항상 그렇지 뭐. 참, 그러냐저러나 너 어떻게 혼자 있지? 전에는 항상 필재하고 같이 다녔잖아? 뭐 일 있었어?

영희 : 뭐 일은....., 이제는 그 아이하고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지 뭐.

다정 : 그게 무슨 말이니? 너희 친구 사이 아니었니?

영희 : 친구는 뭐 친구. 필요하니까 잠시 친한 척한

거지. 2학기에는 수행평가가 거의 없잖아? 1학기 때야 수행평가가 많아서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랬던 거야. 또 필재가 날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잠시 나도 그 아이를 좋아하는 척해 준 거지. 내가 진짜 좋아해서 그런 거니?
다정 : 너, 어쩌면 그럴 수 있지? 너무하잖아. 필요하면 친구고, 필요 없으면 친구가 아니라니. 너한테 도움이 안 되면 나도 필재처럼 모른 척하겠네. 네가 필재에게 한 짓에 딱 맞는 말이 있지.

'영희'는 수행평가를 제대로 할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필재'에게 접근하여 친근하게 대하고, 수행평가를 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그 후 도움이 필요 없게 되니까 필재를 대하는 태도를 바꾼다.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필요할 때와 필요 없을 때 달라지는 것을 지적하는 말로 '뒷간 갈 적 맘 다르고 올 적 맘 다르다.'는 속담이 적절하다.

3. [출제의도] 이야기에 이어질 인물의 모습과 말을 추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서기 4세기 후반, 양자강 이남의 중국 남부를 지배하던 동진(東晉) 왕조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전진(前秦)의 황제인 부견(苻堅)이 여러 이민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황하 유역을 평정한 후,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 백만 대군을 동원해 침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때 동진에는 훌륭한 정치력을 발휘해 주위의 신뢰를 받는 명재상 사안(謝安)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진의 대군이 침입하자 적을 막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뛰어난 장군이었던 동생 사석(謝石)과 조카 사현(謝玄)에게 8만의 정예병을 주고 전장에 파견했습니다.

사안은 매사에 감정을 절제하고 태연하게 행동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진의 침입에 속마음은 불안했지만,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별일 아닌 듯이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적군은 수가 많지만 여러 이민족이 뒤섞인 오합지졸(烏合之卒)에 불과하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백성들의 혼란을 진정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내부의 혼란을 막는 데 성공한 사안은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 전진의 백만 대군이 전장에 모두 집결하기 전에 그 선봉 부대를 격파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상황을 사석과 사현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동진의 군대가 기습 공격을 감행해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 사안은 재상인 자신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 평소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자기의 별장에 손님을 초청해 바둑을 두었습니다. 한참 바둑을 두고 있는 도중에 승전의 보고서가 도착했는데, 그때에도 그는 감정을 절제했습니다. 기뻐하는 표정도 없이 보고서를 한번 훑어 보고는 옆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바둑이 끝나고 손님을 배웅할 때, 금급해진 손님이 아까 도착한 보고서의 내용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안은

동진의 재상 '사안'은 매사에 감정을 절제하고 태연하게 행동한 사람이다. 그는 전진의 침입으로 국가적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러한 성격을 유감없이 발휘해 내부의 혼란을 진정시켰다. 사안의 성격으로 미루어 보면, 그는 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분한 태도로 전쟁에 이긴 사실을 언급했을 것이다.

[오답풀이] ④ 담담한 모습은 어울리지만, 바둑이 끝나 떠나는 손님에게 '바둑을 계속 두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내용상 적합하지 않다. ⑤ 즐거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사안의 성격상 어울리지 않고, 사안은 정보를 전달한 것이지 직접 계책을 짰 것은 아니므로, 내용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

4. [출제의도] 남자가 설명한 무게중심을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회자(여) :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쓰신

'물리를 알면 생활이 보인다'라는 책이 요즘 장안의 화제입니다. 선생님 책을 보니까, 제가 물리를 몰라서 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자(남) : (웃음) 물리를 모른다고 해서 일상생활을 못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물리적 원리를 알고 있으면 그만큼 우리의 생활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자 : 물리적 원리를 알면 우리의 생활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에게도 쉽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적절한 사례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자 : 혹시, 래프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도 무게중심이라는 물리의 기본적인 법칙이 적용되죠. 이 법칙을 알면 래프팅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고, 래프팅을 좀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사회자 : 그런데 무게중심이라는 게 뭐죠?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자 : 무게중심이란 물체의 각 부분에 작용하는 중력이 합해져서 작용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게중심은 물체의 위치가 어떠한가와 관련이 있는데, 물체의 윗부분에 무게중심이 있을 경우에는 물체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쓰러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무게중심이 물체의 아래 부분에 있을 경우에는 물체가 안정한 상태가 되어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회자 : 그런데 무게중심의 원리가 래프팅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저자 : 보트를 받쳐주는 바닥은 물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면 그 방향으로 보트가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트 바닥에 힘이 고르게 분포하도록 해서 보트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보트에 골고루 앉아야 합니다. 그래야 왼쪽에 탄 사람의 무게에 의해 보트가 뒤집어지려는 힘이 오른쪽에 탄 사람의 무게에 의해 뒤집어지려는 힘이 서로 균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의 사람이 일어서게 되면 몸의 무게중심이 위로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 그와 비례해서 보트 전체의 무게중심이 높아져 조금만 흔들려도 보트가 쉽게 뒤집어집니다.

사회자 : 아, 그렇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자 : 그럼 정말 이해했다 제가 질문을 해 볼게요. 자, 그림을 봐 주세요. 그림 다섯 개가 보이시죠? 저 그림 중에서 외부의 힘에 의해 기울어진다고 가정할 때, 가장 불안정한 것은 어떤 걸까요?

남자는 무게중심이란 물체의 각 부분에 작용하는 중력이 합해져서 한 곳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면서, 무게중심이 물체의 아래 부분에 있을 경우에는 물체가 안정된 상태가 되어 잘 쓰러지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무게중심이 물체의 윗부분에 있을 경우에는 물체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쓰러지기 쉽다고 했다. 따라서 다섯 개의 그림에서 무게중심이 가장 높이 있는 다섯 번째의 것이 가장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5. [출제의도] 두 사람의 말하기 방식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여자는 남자에게 '물리적 원리를 알면 우리의 생활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에게도 쉽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적절한 사례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또는 '아, 그렇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등의 말을 하고 있다. 이로 보아 여자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남자의 상세한 설명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출제의도] 연상 및 발상을 통해 글의 내용을 제대로 구성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연놀이 장면을 인간의 삶의 모습과 연관해 이해할 때, ① '연의 다양한 높이'를 통해 사람간의 관계성과 관련된 글을 구성한다는 생각은 긴밀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다양한 높이라는 점을 착안점으로 하여 글을 쓴다면 인간의 다양한 능력, 서로 다른 계층성 등, 인간의 삶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차별성이 드러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7. [출제의도]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활용한 내용이 적절한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자료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가족의 형태에 관한 것이다. <자료1>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이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 <자료2>와 <자료3>은 닥크족, 통크족, 싱글맘, 싱글대디 등 새로운 가족 형태를 소개하고 그들을 대하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자료3>은 이들을 대하는 인식의 전환과 여러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자료3>과 <자료1>을 관련 지어 가족형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억제효과를 연결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8. [출제의도] 개요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알맞게 고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개요는 논리적 흐름을 갖는다. 개요의 논리적 흐름을 고려할 때, II-2와 III-2는 적절하게 연결된 것이다. 따라서 ②처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과다 홍보'라는 항목으로 ㉠을 수정했을 경우에는 개요의 논리적 흐름을 훼손하게 된다.

9. [출제의도] 조건에 따라 글을 쓸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다양한 삶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사회를 지향하는 내용을 담고, '다름'과 '틀림'이라는 어휘를 대비하였으며 사회를 꽃에 비유하였으므로, ①이 가장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글을 바르게 고쳐 쓸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의 주어는 '디아스포라'이므로 주어와 호응하도록 '자연스럽게 융합하는 곳이다.'로 고쳐 써야 한다.

11. [출제의도] 문장 부사의 특징을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가.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었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다행히.
 나. 다친 사람이 없었다니 다행이다.

위의 예로 보아 '다행히'는 <보기>에서 설명한 '의외로'와 같은 특징을 지닌다.

[오답풀이] ②의 '그리고'는 문장 부사 중 접속 부사이고, ③, ④, ⑤의 밑줄 친 부사는 문장의 어느 한 성분만 수식하는 성분 부사이다.

12. [출제의도] 유사한 형태를 지닌 어휘들의 뜻을 구별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②에 <보기>의 설명을 적용하면 '많이 걸여 좋아리가 땅겼다.'가 맞다.

[오답풀이] 나머지 답지는 모두 잘못 사용된 어휘를 맞게 고친 것이다.

[13~16] [현대시] (가) 김춘수, '분수', (나)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게', 정현중,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13.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③ (가), (나), (다) 모두 '분수', '나무', '공'의 모습을 통해 그 속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인생의 의미

와 삶의 모습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가), (나)에만 해당되는 설명이다. ②(가), (나), (다)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④(가), (나)가 시적 대상을 청자로 염두에 두고 말하는 듯한 어투로 잘못 읽을 수 있으나 모두 화자의 독백일 뿐이다. ⑤(가), (다)는 사물 자체의 속성(분수, 공)이 대비되어 드러난다. (나)는 사물(나무)과 상황(겨울)이 대비된다. 그러므로 사물과 사물을 대비해 삶을 성찰한다는 말은 잘못이다.

14.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는 '카뮈'가 인식한 인생의 보편적 의미와 삶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 어찌 보면 무의미한 인생 일지라도 이런 인생을 자각하고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라는 카뮈의 철학적 인식이 간단히 드러나 있다. ⑤ 떨어져도 다시 튀는 공의 모습은 떨어진 바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떨어진 바위를 밀고 올라가는 시지프스의 모습과 통한다.

15.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① 동일한 어구를 반복하거나, 변화를 주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나)에만 해당한다. ③(나)는 상승의 이미지, (다)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 반복을 느낄 수 있다. ④(나), (다) 모두 현재형 시제로 대상을 포착하여 그리고 있다. ⑤(다)에서 공감각적 이미지를 확인할 수 없다.

16.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⑤ 둥근 공의 이미지가 원만한 삶과 연결될 수 없다. 시 내용의 흐름으로 보아 '둥근 공'은 탄력 있는 삶, 즉 좌절하지 않는 삶과 관련이 있다.

[17~20] [사회] 출제 : 재구성한 글

17. [출제의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답지의 순서대로 처음에는 FTA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FTA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한미 FTA 체결 후 우리나라에 예상되는 경제 변화에 대해 각종 예상 수치를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글에서 한미 FTA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의 변화를 기술한 부분은 산업 자체의 장단점이 아닌 이익을 볼 분야와 손해를 볼 분야를 상세히 설명한 것이다.

18.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셋째 문단에 정부가 주요 무역대상국들과 FTA 협상을 추진 중에 있다고 했고, 미국과는 이미 체결했다고 했으므로, 그 외 어느 나라와 협상을 추진 중인가에 대해 학습하는 것은 심화 학습으로 적절하다. 그리고 넷째 문단에서 자동차 분야와 농업 분야에 대한 자세한 수치를 인용했으므로, 이들 외의 분야에 대해 더 조사하는 것도 심화 학습으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세의 변화 계획과 자동차 대미 수출액의 변화에 대한 정보는 넷째 문단에 있다.

19. [출제의도] 관점을 파악하여 비판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관점을 파악하고 적용하는 문제는 먼저 기준이 되는 관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기>의 글쓴이는 FTA가 체결된 후 수출이 늘더라도 언젠가는 식량을 수입할 수 없는 시점이 다가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농업의 붕괴는 어떻게 하든 막아야 하는 사안이므로 총력을 기울여 농업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글쓴이의 관점에 부합하는 의견이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식량 수입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② 농업의 붕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출을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다. ④ 농산물 유통망 정비는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부차적인 것이다. ⑤ 식량 자급에 주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관심 밖의 사안이다.

20.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자유무역협정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국제 경제 동향을 기술한 것이고,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둘째 문단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FTA 협정은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유입하여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했으므로 '차단하여'라는 말은 글의 내용에 어긋난다.

[21~24] [고전 소설] 지은이 모름, '옥루몽'

21. [출제의도] 글을 통해 상황을 추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양원수와 강남홍이 대결하는 장면을 묘사한 부분은, '양원수는 아직도 강남홍을 알아보지 못하고 창을 높이 들어 찌르려고 덤벼드는 아슬아슬한 찰나.'밖에 없다. 즉, 승부의 결과를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예의 우열이 드러나는 부분도 없다. 그러므로 양원수의 무예가 강남홍의 무예를 능가한다고 진술한 ③번이 정답이다.

22. [출제의도] 대화를 통해 드러나는 인물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글의 내용상 강남홍과 대결하고 있는 소사마는 강남홍이 그리워하고 있는 양원수의 부하이다. 그러므로 강남홍은 소사마와 싸울 생각이 없다. 사부의 명예 위해 어쩔 수 없이 만왕의 편이 되어 전쟁에 참전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 ③번이 정답이다.

23. [출제의도] 두 부분을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글의 내용상 적장은 강남홍이다. 그리고 [A]에 보면, 양원수는 '어여쁜 여인 같으면서도 용맹무쌍한 적장'에 대해 '날이 갈수록 의심을 풀길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원수가 적장이 벽성선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으며, 따라서 ③번이 답이 된다.

24. [출제의도]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숙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막아낼 도리가 없었다.'에서 '어쩔 도리가 없어 꼼짝 못함'의 의미를 가진 ④번의 속수무책(束手無策)이 답이 된다. ① 사생결단(死生決斷)-죽고 삶을 돌보지 않고 끝장을 내려고 대륙. ② 오월동주(吳越同舟)-사이가 나쁜 사람끼리 같은 장소·처지에 함께 놓임. ③ 견문발검(見蚊拔劍)-모기를 보고 칼을 빼는 뜻으로, 하찮은 일에 너무 크게 성내어 덤빔. ⑤ 전전반측(顛轉反側)-누워서 이리저리 뒤척거리며 잠을 못 이룸.

[25~27] [과학] 장혜원, 전용훈 글 참조

25. [출제의도] 세 가지 제품군 폴리법의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동아시아 전통수학사에는 가장 중요한 고전으로 '구장산술'과 이를 일반화시킨 '증승개방법'이 있다. 그러나 홍길주는 이런 전통적인 방법과는 전혀 다른 획기적인 폴리 방법을 만들어냈다. 따라서 홍길주의 제품군 폴리법(㉠)이 구장산술에서 제시한 제품군 폴리법(㉡)이나 증승개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발전시켰다는 ④는 적절하지 않다.

26. [출제의도] 구장산술에서 제시한 제공근 풀이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구장산술로 144의 제공근을 구하려면 우선 제공근의 최고 자릿수를 예상한 뒤 나머지 자릿수를 구해야 한다. 이것을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구하려면, 도형을 우선 최고 자릿수와 나머지 자릿수 부분으로 나누어야 한다. 그렇다면 <보기>의 a는 144 제공근의 십의 부분을, b는 일의 부분을 의미한다. 즉, a^2 은 100이고, $(a \times b) + (a \times b) + b^2$ 은 44라는 의미다. 이것을 [가]와 관련지으면 $(a \times b) + (a \times b) + b^2$ 이 $(2 \times 10 + B) \times B$ 에 해당한다. 따라서 $(a \times b) + (a \times b)$ 가 $(2 \times 10 + B) \times B$ 에 해당된다고 한 ㉔는 적절하지 않다.

27. [출제의도] 홍길주의 풀이법을 적용하여 실제 제공근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홍길주의 제공근 풀이법은 이렇다. 먼저 원래 수를 반으로 나눈 다음, 그 수에서 1을 빼고, 다시 1을 뺀 나머지에서 2를 빼고, 또 다시 2를 뺀 나머지에서 3을 빼 간다. 이런 식으로 1부터 자연수를 순서대로 빼 나가다가 더 이상 뺄 수 없을 때 이 수를 2배해서 다음에 빼고자 했던 수와 비교해본다. 비교 결과 두 수가 같으면 그 수가 제공근이다. 홍길주 방법으로 <보기> 289의 제공근을 구할 때 16을 뺀 나머지 8.5는 17로 뺄 수가 없으므로 8.5를 2배해야 한다. 그런데 3배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㉔는 적절하지 않다.

[28~32] [수필복합] (가) 허세욱, '초승달이 질 때', (나) 허난설헌, '규원가', (다) 김정희, '배소만처상(配所晩妻喪)'

28.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유배지에서 아내의 부고를 들은 참담한 심정을 드러낸 (다)에는 비판적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가)에서는 비판적 인식을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㉑ (가)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과 아버지에 대한, (나)에는 자신을 찾지 않는 남편에 대한, (다)에는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난다.

29. [출제의도] 작품 내용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소식이야 더욱 알랴'라는 구절로 볼 때, (나)의 화자는 임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다.

30. [출제의도] 시어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㉔는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화자의 한과 슬픔을 담고 있으며, ㉕는 화자의 분신으로 자신을 잊은 임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

31. [출제 의도] 작품을 다른 장르로 전환하여 표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아버지는 엄하고 잔정을 표현하지 않았던 분이므로, ㉔는 원작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

[오답풀이] ㉕ [A]의 뒷부분에 나오는 '아버지가 지금은 더욱 그림다'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장면이다.

32. [출제의도] 공통되는 화자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다)와 <보기>의 화자는 모두 아내와 사별한 슬픔과 그로 인한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33~36] [현대소설] 이호철, '탈향(脫鄕)'

33. [출제의도] 주어진 글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의 서술자는 '나'이다. 그런데 서술자인 '나'는 관찰자의 모습에 가깝다. 나머지 세 사람의 행동과 심리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묘사하고 있다. 사건에 개입하지도 않고 인물 간의 갈등을 증재하고 있지도 않다.

34. [출제의도] 작품 속의 소재가 지닌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장자골집 형수'의 이미지는 포근하고 안온한 옛 시절의 추억으로서, 네 사람이 처한 거친 현실 속에서 서로를 공동체에 묶어주는 힘으로 작용한다.

[오답풀이] ㉑은 타향에서 만나는 부산 사람들을 의미하고, ㉒은 두찬이가 저지르는 불법적인 행동을 가리킨다. ㉓은 거친 현실인 부산을 의미하고, ㉔은 힘든 일상을 상징한다.

35.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상태와 갈등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 처음에는 두찬과 광석 사이에 갈등이 없었다. 그러다가 두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점차 커진다. 사교성이 좋은 광석은 타향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하지만 고향에 대한 말 없는 집착을 가지고 있는 두찬은 속없이 타향에 적응하려는 것은 쓸 데 없다고 여긴다. 이처럼 환경을 대하는 두 사람의 대응 방식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긴다.

36. [출제의도] 적절한 어휘를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엄병뎡뎡'은 '주관 없이 함부로 덤비는 모양'을 뜻하는 말로 이 글에 나타난 광석의 성격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단어이다.

[오답풀이] ㉑ '짚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갈팡질팡하며 다급하게 서두르는 모양', ㉓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선뜻 행동하는 모양', ㉔ '급급한 마음으로 몹시 허둥거리는 모양', ㉕ '궂고 그름을 가리지 아니하고 단박에 들이뎡뎡하는 모양'을 나타낸다.

[37~40] [예술] 한정식, '사진의 추상화'

37. [출제의도] 문단의 핵심 화제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라)의 핵심 화제는 '추상 사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라)의 내용은 회화와 사진이 매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물의 형태를 왜곡한 사진은 진정한 의미의 추상 사진이 아니라는 것이다.

38.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진은 매체의 특성상 구체적 사물을 전제해야 작품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추상화 되더라도 구체적 사물의 형태는 벗어날 수 없다.

39.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회화와 사진은 매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추상회화를 모방하여 기계적 조작으로 상을 왜곡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추상 사진이 될 수 없다. <보기>의 사진에서 작가는 자신의 주관적 관념을 시각화하기 위해 '바위'와 '할머니'라는 사물의 원초적 의미를 제2의 의미로 재창조하였지만, '바위'와 '할머니'라는 사물의 외형을 왜곡하지는 않았다.

40. [출제의도] 구절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㉔에서 사진에 찍힌 사물이 '해석되지 않은' 사물로 인식된다는 것은 작가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되지 않은 객관적 사물로 본다는 의미이다. ㉕에서는 사진이 회화와 달리 사물의 외형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진을 '완고한' 매체라고 했다. 따라서 ㉖의 의미는 '완전하고 튼튼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형식의 규제를 많이 받는다.'는 비유적 의미로 쓰였다.

[41~44] [인문] 조한욱,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

41.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㉔는 세 번째 단락에서 메노키오가 이단 심판을 받고 처형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42.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한국 문학의 갈래 중에서 ㉑에 제시된 신문화사의 관점을 적용하였을 때 사료적 가치가 높은 것은 민중의 삶이 담겨 있는 고려 속요와 민요이다.

43. [출제의도] 이어질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본문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신문화사의 의의에는 보통사람들의 일상을 주시하여 그들이 대표하는 민중들의 삶을 들여다보되 새로운 인식과 방법으로 보았다는 점이 들어가야 한다.

44. [출제의도] 다의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㉔와 ㉕의 '그리다'는 '생각이나 연상 따위를 말이나 글, 음악 등으로 나타내다.'의 의미이다.

[45~47] [언어] 박영준 외, '우리말의 수수께끼'

箕, 末는 한자의 뜻을 빌려 이름을 삼았다고 추정한다.

45.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자음의 명칭을, 첫소리와 끝소리에 모두 쓰이는 것은 두 글자, 첫소리에만 쓰이면 한 글자로 하였다고 하였으므로, 현대 자음의 명칭이 모두 두 글자로 쓰인 것은 해당 자음이 첫소리와 끝소리에 모두 쓰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46. [출제의도] 제시된 지문과 관련된 자료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훈몽자회>는 한글 자모의 명칭을 밝히고 있으며, <보기>는 한글 자음의 음가를 설명하고 있다.

47. [출제의도] 제시된 지문과 관련된 자료를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보기>에서 '한자는 해체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48~50] [기술] '플라스틱 카드 기술'

48. [출제의도] 글의 전개 방식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위 글은 마그네틱 스트립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카드가 작동되는 원리를 상세하게 소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49.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관련 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는 마그네틱 스트립 카드와 카드의 정보를 읽어내는 판독기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모식도이다. 본문의 내용에 따를 때, 마그네틱 스트립(㉔)의 정보는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바이너리 코드로 전환되어 컴퓨터가 인식하게 된다고 했으므로 ㉕의 반응은 적절치 않다.

50. [출제의도] 대상을 활용한 사례가 적절한지를 묻는 문제이다.

서명, 비밀번호 입력 등 추가 절차를 하여야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카드는 마그네틱 스트립 카드이다. 따라서 ㉕는 스마트 카드가 아니라 마그네틱 스트립 카드의 활용 예라고 할 수 있다.